



**글 천유나**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2학년  
cyuna2003@naver.com

지역의 비평준화 일반고를 졸업했다. 가르치는 일과 교육 봉사를 좋아해 교대를 목표로 공부했지만 한의학에 매력을 느껴 반수 끝에 한의대생이 됐다. 많은 학생이 나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충전해 마음껏 도전하길 바란다.

첫 번째 주제\_ 좌충우돌 진로 찾기

## 아파서 찾아간 한의원에서 새로운 꿈을 찾다

### 교대 진학을 위해 선택한 고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학 입시를 고민하는 친구가 많아졌다. 대학은커녕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할지도 정하지 않았던 나는 그때부터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불현듯 초등학교 방과 후에 교실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일하시던 선생님이 생각났다. 그 모습이 부러웠던 나는 다른 직업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법과 교대에 가는 방법을 검색하며 안정적이고 방향이 있는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집에서 멀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교대에 많이 진학한다는 입시 팸플릿에 마음이 이끌려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학교로 가는 버스도 한 대뿐이라 어머니가 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새벽 6시 30분

에 일어나 짜증을 내면서 겨우 아버지의 차를 타고 등교했다.

젯바퀴처럼 늦은 시간까지 야간자습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몸에 과부하가 걸렸다. 위염, 위경련, 소화 불량, 편두통, 빈혈 등으로 쉬는 시간마다 보건실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침을 맞고 누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일까? 소화가 잘 안 되고 편두통이 심해져 몇 번이나 야간자습을 빠지고 한의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한의학에 관심이 생겼다.

결국 수능 며칠 전, 한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원서 접수는 이미 끝났기에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할지, 원래 계획한 대로 교대에 가서 지긋지긋한 입시에서 벗어날지.

